

2024년 제1차 생태환경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일 시 : 2024. 3. 5.(화) 10:00
- 장 소 :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컨퍼런스룸
- 참 석 : 총 17명의 위원 중 13명 참석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참석	비고
1	이덕자	행복중심진해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 이사장	○	위원장
2	윤석연	(전)창원중부 녹색어머니회 교육이사	○	간사
3	김용화	창원특례시민협의회 마산회원구위원장		
4	김은주	생활정치아카데미 창원시민회의 홍보위원장	○	
5	김진순	대성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6	노경협	엔케이컴퍼니 대표	○	
7	문성용	(주)물환경 대표	○	
8	박소연	동영미디어 대표	○	
9	박은율	한국생태환경연구소 사무처장	○	
10	박종기	룩스전기통신 대표		
11	박진수	(주)유존건설 대표이사	○	
12	손영섭	(사)대한해협해전 전승기념사업회 수석 부회장	○	
13	이광식	자연보호연맹창원시협의회 회장	○	
14	이민영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15	최은하	창원특례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의원		
16	한정희	K-ECO연구소 기획부장	○	
17	황보경옥	진해구 덕산동 주민자치회 교육환경문화분과장	○	

□ 회의록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김연옥 사무국장이 총 17명의 위원 중 13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충족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5항)

2. 참석위원 인사

- 참석위원들이 상호 인사를 나누다.

3. 2024년 생태환경분과위원회 사업계획(안) 논의

- 김연옥 사무국장이 회의 안건지를 토대로 생태환경분과위원회의 사업 1안 ‘조류충돌 방지 활동 사업’, 2안 ‘진해만 갯벌, 해양 생태계 보존과 관련된 워크숍’, 3안 ‘환경교육 마일리지 프로젝트 사업’ 대하여 설명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사업 1안에 대해 분과에서 어디까지 사업을 할지 의논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전에 조류충돌 방지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말한다. 먼저 교육을 받고 조류충돌 방지 스티커 제작이나 배포, 산속 카페 등 직접 가서 스티커 작업을 해보는 것이 어떨지 제안한다.
- 황보경옥 위원이 상복공원 화장장 입구에 비둘기가 떨어져 있던 사례를 공유하며 조사를 할 때 장소와 시간, 계절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조류가 먹이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산란기 때 더 활동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할 때 조사 장소, 시간, 계절을 고려해야 함을 얘기한다.
- 한정희 위원이 어느 한 장소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우리가 도트를 붙이는 작업을 직접 해보고 좋으면 시행하는 기관을 늘려나가는 곳이 좋겠다고 한다. 새롭게 조사를 하고자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자료가 나와 있는 곳에서 시행하면 좋을 것이라고 한다.
- 황보경옥 위원이 조사 장소를 늘리자는 얘기는 아니며, 교육을 받을 때도 시간과 계절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한다.
- 박은율 위원이 우리가 부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음을 말한다.
- 한정희 위원이 실제로 우리가 부착할 수 있다면 하고 안된다면 해당 기관에 배포하는 정도로 할 수 있다고 한다.
- 박은율 위원이 스티커를 제작해서 우리가 붙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한다.
- 이덕자 위원장이 최윤덕 도서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으며, 우리가 조금 더 조사해서 스티커 작업을 해보는 것을 제안한다. 다만 그 전에 교육을 한번 받아야 하며 조류가 왜 충돌하고 충돌 방지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떨 때 충돌하는지 등 우리가 먼저 교육을 받아야 하니 깊이 있는 강사님을 모시고 교육을 하면 좋겠다고 한다. 그다음 스티커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할 수 있다면 직접 붙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한다.
- 이덕자 위원장이 사업 2안에 대하여 바다의 날, 환경의 날 등 다양한 행사에서 생태환경분과가 나서볼 것을 제안한다. 갯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바다의 날에 맞추어 교육을 받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청소도 하는 등 위원분들만 17명이며 각각 속한 기관 단체만 하더라도 많이 참여할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다고 한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정화 활동)을 할지 말지 의견을 모아주시면, 물때를 보고 투표를 올리는 등 장소와 시간을 제안하겠다고 한다.
- 손영섭 위원이 바다의 날 때 대죽도 자원봉사회에서 하는 행사가 있으며 진해구 쪽을 청소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만약 한다고 하면 워크숍 강의를 같이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한다. 진해만은 엄청 넓기 때문에 진해항으로 하자고 한다.
- 문성용 위원이 명칭은 진해만을 고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워크숍 강의 쪽에 포커스를 두고 굳이 우리가 현장에서 청소를 안 해도 다른 조직에서 하니 우리는 워크숍을 제대로 해주는 게 방법적인 면에서도 다른 기관과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것 같다고 한다.
- 이덕자 위원장이 이 워크숍의 강사들이 진해만에서 진해뺨을 모니터링 하시는 분이 강사이면 좋겠으며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등의 얘기도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 한정희 위원이 강사님은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강사님이 좋을 것이라고 하다.
- 박은율 위원이 우리가 3개의 안을 다 한다면 하나는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고 두 가지는 선택이 맞는 것 같다고 하다. 모든 위원님들이 바쁘는데 3개 중에서 한 개를 집중적으로 하고 두 개는 일회성이 좋겠다고 하다.
- 윤석연 간사가 3안 내용까지 보고 결정을 하면 어떻게 제안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생태환경분과가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시간을 내어야 하는 일은 한 가지 해주시고, 바다의 날은 사무국에서 진행을 할 때 분과 위원님들이 참가하시는 방향은 어떤지 제시하다.
- 황보경옥 위원이 어느 공간에 사람들을 모으는 자체가 힘이 들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배너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여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쉽게 접근하는 방식이 어떻지 제안하다.
- 손영섭 위원이 갯벌과 관련하여서 진해항, 학계에 유능하신 분이 강의하셔서 공신력이 있고 황보경옥 위원님의 말씀대로 배너를 설치하는 것도 좋으며, 우리와 관계된 것은 학술적인 것들과 연계하여 어떻게 인식을 시킬 것인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세 가지 안을 다 보고 결정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사업 3안 '환경교육 마일리지 프로젝트'에 대해 시민 참여를 도모하면 어떨까 싶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윤석연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 윤석연 간사가 올해는 분과에서 만드는 작업보다는 시민들로부터 1분 쇼츠 공모전을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시장상이 나가는 등의 시민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제안 배경을 설명하다. 3개의 안에 대해 다수결로 투표해볼 것을 제안하다.
- 한정희 위원이 1안을 주력으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에 하루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면 될 것이라고 하다.
- 황보경옥 위원이 제일 재미있는 건 3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다. 시민이나 주민들이 투표하도록 하면 홍보 효과도 시너지 효과도 있고 영상도 다양할 것이라고 하다.
- 박소연 위원이 3안을 하고자 한다면 시장품이나 상품에 대한 부분이 적절해야 하며 영상 공모전의 경우 시민 개개인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제작하는 것이어서 당첨의 기대를 하고 공모하는 분들은 시상금을 보고 한다는 것을 설명하다. 그러한 것이 우리 예산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고 하다. 심사와 관련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이 됨을 밝히다.
- 노경협 위원이 3개의 사업보다는 1~2개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2안 워크숍이 주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다. 어차피 저희가 예산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1~2안을 같이 진행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다.
- 문성용 위원이 홍보효과, 시민 참여, 인식 개선이라는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니 3번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다.
- 박은율 위원이 2안은 이미 다른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분과의 특성이 없는 사업인 것 같다고 하다. 개인적으로 3안이 흥미로우며 또다른 방안과 의견들이 나올 것 같아서 3안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다.

- 이민영 위원이 1안과 관련하여서 예산상의 부분이나 인력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지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환경연합에서 조류충돌 강의에 대해 길게 줌으로 한 적이 있다고 밝히다. 2안에 대해서는 여건이 되면 진해루 일대에 쓰레기 줍는 것을 하고 싶으며, 5월과 9월은 대대적으로 창원시에서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다른 단체에서 참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하다.
3안에 대하여서는 창원 그린 엑스포에서 영상 공모전을 받아봤는데 어려웠으며 비용적인 측면에서 사무국에서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다.
- 이광식 위원이 2안과 관련하여 이런 워크숍을 할 때 우리 회원도 같이 참여하는 등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다.
- 박진수 위원이 1~3안 실천을 해보면 좋겠다고 하다. 또한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오염 물질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후 뺏수습을 하는 것보다 그 원인을 제거하는 쪽이 중요함을 강조하다. (환경 정화조 시스템에 대한 교육 등)
- 손영섭 위원이 1안에 대해서 의사가 있는 쪽에 접촉하여 그곳 한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며, 2안과 관련하여 국립수산물과학원 또는 부산해양연구원에 있는 분을 초빙하여 현재 진해만에 대한 설명과 교육을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다. 키오스트(한국해양과학기술원)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이 있으니 연결하면 될 것 같다고 하다. 3안은 적극 추천한다고 하다.
- 김은주 위원이 1~3안 찬성이고 1안과 관련하여 국립생태원 강사를 모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며, 2안은 하루 정도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3안의 경우 예산만 확보된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세 가지의 안이 모두 좋은데 예산이 문제며 안 쓰는 분과들 것을 가져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하다.
- 윤석연 간사가 3안과 관련하여 심사는 분과 위원들이 직접 하면 되는 것이며 어린아이들은 본인이 체험한 것으로 참여하면 된다고 하다.
- 박소연 위원이 3안의 경우에는 예산보다는 참여율이 가장 중요하며 최근 추세로 보면 학생들이 영상 공모전을 내리하면 자기들 인스타그램에 올리는데 이런 걸 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다고 하다. 요즘에 중학교 자유학기제도 있으니 이런 것을 진행했을 때 참여율을 위해 사전에 검토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참여율이 작년보다 낮으면 안 하느니만 못할 수 있다고 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이전 그린 엑스포 공모전 때 교육청을 통하여 공문을 보내어도 들어오는 접수가 얼마 안 되었음을 말하며 우려를 표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1~3안을 우리의 형편에 맞게 고민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하다

- 1안- 조류충돌 방지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후 스티커 제작, 배포 활동 추진 및 가능하다면 분과에서 한 기관을 선정하여 스티커 부착 활동
- 2안- 바다의 날 주간에 맞추어 갯벌, 해양 생태계 보존과 관련된 워크숍 및 정화 활동 참여
- 3안- 하반기 1분 쇼츠 영상 공모전 추진, 세부 사항 추후 논의

4. 기타토의 및 일정 안내

- 노경협 위원이 동마산 청년회의소 사업을 설명하고 분과위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도와줄지 문의하다.
- 노경협 위원이 스태프 역할 또는 분과에서 부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작년 환경 교육 영상을 통해 분리배출 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다.
- 이광식 위원이 봉사자들이 필요하면 모집해서 연계하여 주겠다고 말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언제까지 확정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문의하다.
- 노경협 위원이 4월 중순까지는 확정해줘야 할 것 같다고 답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작년에 했던 영상을 틀어놓고 우리가 시연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이 외에도 생태환경분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면 좋겠다고 하다.
- 노경협 위원이 홍보 부스를 한 개 더 만드는 것으로 우선 추진하겠다고 하다.

1. 5월 18일(토) 동마산 청년회의소 사업 생태환경분과 참여
2. 생태환경분과 부스 운영, 환경교육 영상 재생 및 분리수거 시연
3. 이광식 위원 봉사자 모집 연계 지원

4. 광고 및 폐회

- 김연옥 사무국장이 2024년 협의회 사업추진 일정표와 기후환경국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을 하다.
- 차기 회의는 4월 16일 10:00에 개최하기로 하다. (장소 미정)

□ 회의사진

